

성폭력 실태와 사회복지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배나래^{1*}, 소권섭²

¹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A Study on the Realities of Sexual Violence and the Measure for Social Welfare

Na-Rae Bae^{1*}, Kwon-Seob So²

¹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²Dept. of Healthcare &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상황을 다루어,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 시키고 보다 폭넓은 인식을 도우며,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공동체적인 사회적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흔히 이중적인 성의식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성의 성은 어려서부터 공공연히 다루어지고 때로는 자랑거리까지 간주되어 왔다. 남성의 성적욕구는 억누르고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심지어는 남성다움으로 인식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성욕은 불결하고 수용될 수 없으며 은폐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순결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도록 사회화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이중규범은 우리 사회의 남성들로 하여금 더욱 공격적이고 능동적이 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폭력은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행동은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 성폭력이라는 가시적인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겐 왜곡된 문화환경을 물려주므로써 그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일은 일종의 역사적인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current situation and damage from sexual violence, to arouse public opinion, help broader awareness, and further lead to community social efforts to cope actively with the situation. In Korean society, discourse on sex is often conducted in a double structure. Sexual violence is not just a personal misfortune; it is a problem for women as a whole. Furthermore, it is a challenge that society needs to addres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volve its response to sexual violence into a collective, not individual, movement of men and women toward social and cultural movements together. Although the visible reality of sexual violence is important, damaging their mental health by passing on a distorted cultural environment to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seen as a type of historical crime.

Keywords : Measures against Sexual Violence, Sex, Sexual Violence, Sexual Abuse, Sex Crimes

1.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 폭력문제이다. 그중에서 특히

성폭력관련 사건들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제 성폭력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하나의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KonYang Cyber Univ.)

email: victory0302@kycu.ac.kr

Received December 24, 2019

Accepted February 7, 2020

Revised February 4, 2020

Published February 29, 2020

여성이며, 게다가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70세 이르는 여성노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해 대상자도 어떤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은 무차별적이고 익명적이며 우발적이기까지 한 현대사회의 범죄적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성폭력의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성적추행은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이 저질러 지고 있으며 그밖에 대중교통수단내에서의 성추행, 직장에서의 성적 괴롭힘, 그리고 대중매체 및 전자매체를 통한 음란 전화, PC 매체상의 성적 폭언 등이 새롭게 문제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는 일반인 특히 여성들로 하여금 성폭력의 직접적 피해대상이나 잠재적인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게 만든다. '2018 여성가족부 통계'[1] 에 따르면, 살인·강도·절도·폭력·사기 등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증가했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1천55건, 2015년 2만1천286건, 2016년 2만2천2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1만7천947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1.7%), 유사강간(2.6%), 기타(1.3%) 순이었다. 이 가운데 유사강간을 포함한 강간 범죄자의 절대다수는 남성(98%),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97.8%)이었다. 강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이 3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웃·지인(12.3%), 친구·애인(12.1%) 순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자의 범행 시 정신상태는 정상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29.1%를 차지해 이른바 '주취(酒醉)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9]. 경찰은 이처럼 성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 사회적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성폭력의 현실은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히 만연되어 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나 정부의 대응책은 매우 미온적이며 비체계적이며, 심지어는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상황을 다루어,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보다 폭넓은 인식을 도우며,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공동체적인 사회적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

「성」을 남녀간의 사회적 권력관계의 바탕에 깔린 핵심 문제로 풀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이후부터이며, 주로 제2의 여성해방운동에 관여하였던 케이트 밀레트, 파이어스톤 등의 여성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성들이 성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가 이루어질 때 까지는 남녀간의 사회적 불평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2].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여성의 출산과 성적 피해의 경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피임, 성매매, 성폭력 등의 문제의식이 서서히 짝트기 시작하였다. 서구에 비하여 우리나라 성연구는 늦은 감이 있는데, 주된 이유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우리사회에서는 공식적 담론에서의 성이라는 주제를 금기시 하는 경향이 있고, 주제 자체가 지극히 사적이거나 개인간의 문제로써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고, 자칫하면 흥밋거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학자들간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남녀간의 불평등문제는 주로 노동과 생산영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여 출산과 성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도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흔히 이중적인 성의식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성의 성은 어려서부터 공공연히 다루어지고 때로는 자랑거리까지 간주되어 왔다. 남성의 성적욕구는 억누르고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심지어는 남성다움으로 인식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성욕은 불결하고 수용될 수 없으며 은폐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순결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도록 사회화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이중규범은 우리 사회의 남성들로 하여금 더욱 공격적이고 능동적이 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은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성에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으로 수용하고 마치 남성들의 특권처럼 행사하는 사회속에서는 여성의 비인간화, 인간성의 파괴로 이어져 전반적인 사회의 불안정을 조장하기 쉽다. 남성중심의 성문화 환경에서는 건전한 성의식이 보편화되기 어려우며, 성과 관련된 향락산업은 번창일로에 서게 된다. 또한 성의 상품화가 진행될수록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게 되고, 결국 성폭행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가해자보다 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모순적 현실을 낳기도 한다.

2.2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다양하게 구분 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2.2.1 전통적 보수주의 접근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심은 매우 미미하였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19세기까지 「엄지손가락 법칙」이 통용되었는데, 이는 남편이 자신의 엄지손가락보다 굵지 않은 회초리로 때리는 한 아내구타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규율이다. 이와같은 여성에 대한 태도는 강간과 같은 성폭력 과도 같은 관계가 있다. 즉 성폭력은 가하는 남성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여성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게다가 프로이드 중심의 정신분석학의 영향도 이러한 견해를 사회적으로 더욱 정당화 시켰다. 즉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독립된 자아를 발전시킬 수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다[2]. 따라서 여성은 남성을 동경하며 존경하고, 수동적이 되고, 결국 피학적인 경향을 띠게 되어,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는 남성으로부터 학대받기를 원하며, 폭력적인 남성을 원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통적 보수주의의 시각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합리화하고,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이데올로기에 힘입어 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아직도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주변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여실히 나타난다[3].

2.2.2 정신 병리적 접근

성폭력은 주로 정신적 불안이나 질환을 가진 극소수의 남성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사건으로 사회전체적으로 만연되었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특정한 성격 소유자들이며, 그 행동은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간주되어 치료가 요구되며, 주로 낯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본다[4].

2.2.3 하위 문화적 접근

하위의 문화적 접근은 정신병리적 접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 정상

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실증적 증거에 근거하였다. 그 대신에 가해자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 환경(가족환경, 경제적 상태, 직업 및 교육 등)이 일반인들보다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3]. 따라서 이들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찾기 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찾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성폭력도 일종의 하위 문화 체계속에서 학습되고 강화되는 문화적인 생활양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분노, 스트레스, 불안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틀 속에서는 피해자인 여성들도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즉 여성의 도발적 행위가 폭력문화에 길들여진 남성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여, 피해여성을 범죄시 하는 편향적 시각을 유도 한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2.4 페미니스트적 접근

페미니스트적 접근은 앞에서 언급된 접근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부분의 남성들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4]. 또한 성폭력을 통하여 여성을 소유물로 획득하고자하며, 여성억압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특정유형의 여성들만이 겪는 단절된 모습이 아니라, 여성의 공동문제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2.3 성폭력의 실태 및 피해 상황

2.3.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워낙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반인들 간에 동의 된 개념적 정의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폭부[7]에서 논의된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성폭력은 서로간의 합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한사람의 일방적인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위력에 의해서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성 행위 및 성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성적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윤간, 성적가혹행위, 성적 괴롭힘, 음란물보이기/제자, 윤락

행위 강요, 음란전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현행 법적인 틀 속에서 유지, 실행되고 있는데, 일부 여성 학계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근거한 이분법적인 법 적용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즉 성폭력을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각각의 성폭력 형태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그 행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만을 문제시 하기 때문에 피해자(주로 여성)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전형적인 성폭력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주변적인 성관련 범죄들은 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진정한 법적 집행을 하기 위하여서는 성폭력을 등급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연속선상의 접근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3.2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에 관한 통계자료는 실제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만 한다. 성폭력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매우 미미하고, 피해자들의 신고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일부 나타난 통계자료의 신뢰도에 회의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본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강간 범죄의 발생은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1천55건, 2015년 2만1천286건, 2016년 2만2천2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1]. 그밖에 다른 유형의 성폭력관련 사건들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7], 조사대상자 2,290명의 여성들 중에서 76.4%가 가벼운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기노출은 74.5%, 성적 괴롭힘은 48.6%, 음란전화는 46.3% 그리고 강간미수는 14.1%에 달하였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6], 전체 상담사례의 54.7%정도가 강간에 관한 상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73.7%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부터의 상간을 경험 하였고(이중 27.4%는 친인척), 23.5%가 직장상사 및 동료, 12.9%가 데이트 상대, 11.1%가 동네사람, 5.6%가 동급생이나 선후배, 3.8%가 교사나 강사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의하면[7] 96%에 달하는 여성이 음란 및 폭력전화에 시달린다고 하였으며, 여성승객의 78%는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치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직장 내 성적괴롭힘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다[8]. 「성적 괴롭힘」이란 '상식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직장분위기를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행위'라고 미국 대법원에서 정의를 내렸다. 우리사회에서 성적괴롭힘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몇년전

모국립대학교수가 조교에게 성적 괴롭힘을 한 사건이 부각되면서, 소위 '성희롱'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8], 직장여성 696명의 조사대상자 중 83.5%가 언어폭력을, 24.4%가 신체적 폭력(뺨), 15.4%가 강간 등의 성폭력 희생자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괴롭힘은 사회문화형, 유혹형, 뇌물형, 협박형, 성행위요구형 등으로 분류[2]하여 살펴본 결과 사회문화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중심의 사회 및 노동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노동권 침해는 물론 일상적인 직장생활 속에서 성차별을 받음으로써 더욱 성폭력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가족부[7]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의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근친으로부터 주로 성적 추행이 많았고, 안면이 없는 사람으로 부터는 주로 성기노출이나 음란전화 혹은 성적 추행형태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도 성폭력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20대 여성의 87.7%가 남성동료나 상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7], 20대 직장여성 3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몸매를 평가한다'든가, '못생긴 여자와 일할 맛이 안난다', '여자는 돈으로 살수 있다', '여자는 영계가 최고', '애 잘 낳겠다'등의 표현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언어폭력은 주로 남성의 입장에서 농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49.5%를 차지하지만, 때로는 일상대화나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듣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피해 여성의 행동으로는 농담으로 받아 들이는 경우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주의를 주거나(27.4%), 모른체 한다(25.9%)등의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사과를 요구한다(6.9%)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3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

- 1) 성폭력은 특정한 연령층 특히 젊은 연령층의 성인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실제〉: 여성가족부등[1][7]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4개월된 여아에서부터 70세 이상의 여성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이 해당된다고 나타났다.

- 2) 주로 낮선사람들에 의하여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다.

〈사례〉: 여성가족부 등의 [1][7][9]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의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자료에 의하면 20.3%만이 가해자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거의 80%에 달하는 사례는 가해자를 평소에 잘 알고 있거나 안면이 있는 경우였다.

3)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낯선 사람들에게 의하여 저질러진다.

〈사례〉: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혈연관계에 있는 근친이 가해자되는 경우가 42.9%이며, 그밖에 잘 아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안면이 있는 정도가 57%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동을 거의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10].

4) 성폭력은 주로 어두운 길이나 호젓한 외부 장소에서 발생한다.

〈실제〉: 여성가족부 등의 [1][7][9] 자료에 의하면, 가해자의 집(27.1%) 혹은 숙박업소(23.7%)에서 일어났으며, 한적한 공원이나 야외장소는 10% 내외에 불과하다.

5)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다.

〈실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물리적, 신체적 힘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력이나 사회적 권력 그리고 심리적 위협을 통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무력하도록 만들었다[1][7][9].

6) 사적으로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실제〉: 대부분의 피해자는 타인의 도움을 청하거나 법적으로 호소하고자 한다[8].

7) 남성의 성적욕구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여성의 성적 자율성은 무시될 수 있다.

〈실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적 성의식은 공식적인 학교의 성교육을 통하여 바로잡아져야 한다[11].

성폭력의 구체적인 형태인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수용도를 살펴본 결과[7][9][10][11]에 의하면, 노출한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밤늦게 혼자 다니다가 강간당한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해야한다가 통념을 수용한 사람의 빈도가 89.4%, 모르는 남자의 차를 타고 가다가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에 대한 통념을 수용한 사람의 빈도는 88.2%, 강간범들이 강간을 하는 것은 순간적 성충동 때문이다에 대한 통념을 수용한 사람의 빈도는 38.1%, 여자가 필사적

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피할수 있다에 대한 통념을 수용한 사람의 빈도는 64.1%, 강간당한 여자는 순결이나 정절을 잃은 것이다에 대한 통념을 수용한 사람의 빈도는 59.0%, 매춘은 남자의 성충동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통념을 사용한 사람의 빈도는 44.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대한 진실을 사회에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2.3.4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유형분석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유형[2][3]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명형이다.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형이다. 둘째, 자아 비판형이다. 자신이 무지하고 바보스럽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형이다. 셋째, 가해자비판형이다. 가해자의 이상성격, 변태성향, 성적호기심, 또는 취중이나 경제적 위력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형이다. 넷째, 사회문화구조형이다. 남녀의 성차별이테올로기, 왜곡된 성문화, 여성의 성상품화, 건전한 성교육기회 부재 등에 책임을 돌린다.

2.3.5 성폭력의 피해 현실

성폭력에 대한 피해는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7][9]. 첫째, 신체적 피해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식욕감퇴, 신경쇠약이나 불안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병에 감염되거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신경질과 짜증이 늘기도 하며, 결국은 낙태, 출산 혹은 입양 등의 곤경에 처하게 되는 등 신체적인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편, 결혼생활 시에는 성행위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이나 과도한 성행위를 추구하고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성 불감증이나 성적 죄의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경제적 피해이다. 신체적인 피해로 인한 의료적인 치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결국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된다. 또한 때로는 사유재산이 파손되어 손해를 보게 되고,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휴직이나 실직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경제활동에 위축을 느끼거나 근본적인 생존차원에서 직장 생활을 포기하거나 사회적 생활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경제적 손상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 정신적 피해이다. 신체적 피해나 경제적 피해에 비하여 정신적 피해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간

과 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불안 및 공포를 비롯하여 독립감을 상실하거나 타인(특히 남성)에 대한 적대감, 성생활 부적응 등의 심한 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일반적으로 몇 단계를 거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충격과 불안 속에서의 초기단계에서는 자포자기 및 자살을 시도하거나 신경질적이 되며 모든 가족으로부터 고립된다고 느낀다. 특히 피해의식과 충격에 사로 잡혀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학대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2단계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아를 억압하여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가적응 단계로서 내면적으로는 우울 증세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고 명량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가끔 대인기피증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3단계는 자신에 대한 분노, 죄책감 등을 느끼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면서, 술, 담배를 하거나 약물이나 알콜중독에 빠질 위험도 있다. 그러나 주변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본격적인 치료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인 조정 단계로 들어가는 편이 바람직하다[10].

2.3.6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공식 통계[1][5][6][7][8][9]에 의하면, 성관련 범죄 중 에 특히 강간, 음란행위 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순결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을 경우 치러야할 사회적인 댓가가 너무나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위험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으로 의료적 차원, 법적 차원, 상담치료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의료적 차원이다. 일차적으로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역사회나 정부차원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종합적인 신체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의 피해에 대한 조기치료를 하여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이고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료체계상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거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체검사비 등의 의료비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되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적차원이다. 가

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요하는 법적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 할수 있는 법안의 현실적 적용이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해대상자가 더욱 다양해질 것을 대비하여 포괄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 즉 성폭력에 대한 연속적인 개념 정립이라든가 형량의 다양화 및 강화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양성적인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폭력관련 용어 사용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상담 치료적 차원이다. 단기적으로는 피해자가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피해 초기에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의 면접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피해를 당한 장소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피해 상황의 설명이나 심문성 질문을 하지 않도록 면접자가 충분히 훈련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는 피해자의 사후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므로 피해자의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또는 고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아동에게는 놀이나 그림을 통한 치료요법이 효과적이다. 성인에게는 장기적인 치료프로그램에서 개별면접보다는 집단치료를 시도하는 편이 낫다. 이러한 집단 치료를 통하여 피해자들 상호관계를 통한 연대감을 유도하고, 이와 같은 경험이 자신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며 어느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치료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상담가와 지속적이고도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바로 비인간적인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에게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활력소이다.

정신적 치료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변가족들도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다. 즉 피해자 가족들도 피해자와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장기적인 성폭력을 막아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문화적 차원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사회복지차원에서 통합적인 사례관리와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올바른 성의식,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성문제 관련 상담 실시 등을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을 개방적이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중적인 성의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중적 성의식은 성폭력의 피해자로 하여금 단순한 범죄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를 간주하도록 만들며, 나아가 여성으로 하여금 잠재적인 피해대상자로 더욱 조장될 가능성을 보인다.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문화에 대한 사회적 허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운동을 펼쳐야 하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문화가 향락문화와 결탁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겠다.

3. 결론

최근 우리사회에서의 성폭력의 위험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피해자의 연령이 과거에 비하여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근친상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이 연소화된다는 것은 피해자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즉 너무 어리거나, 가해자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에게는 일생을 통한 만성적인 후유증을 안겨 줄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동기의 성폭력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어린시절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아동은 자기혐오와 불신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서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독립적이거나 저항적이지 못하여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기 쉬우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쉽게 자포자기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재피해의 취약성을 드러내 보인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도 연소화되는 추세이며, 때로는 약물사용의 사례도 자주 발견됨에 따라 성폭력이 조직화되고 범죄화되어 인신매매 및 매매춘으로 연결될 위험도 보인다.

사실, '여성의 노출은 그 자체만으로 성폭력이다'라고 주장하며, 무절제한 노출은 성폭력의 대상이 될 빌미를 준다는 인식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성폭력의 근절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주변에서 성관련 범죄를 조장하는 기존의 성문화를 시정하고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개선하여 성의 공평한 회복함으로 인해 여성을 대등한 인간으로 보는 인식을 가진다면 각종 성관련 산업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성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단속한다면,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복합적이고 통합적이며 총체적인 장치를 통하여 성을 접근

한다면 그리고 성장시절부터 남녀가 건강하게 어울리는 성은 은폐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현실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폭력은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행동은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 성폭력이라는 가시적인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문화환경을 물려주므로써 그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일은 일종의 역사적인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B.H.Kim, M.S.Heo, M.S.Kim, J.R.Ja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Sexual Violence Damage Statement and the Support Plan for Victims, Research Re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pp.42-43.
- [2] Y.S.Jung, C.S.Park, Gender and the Society, p.317, Daegu University Press, 2008, pp190-206.
- [3] K.I.Kim, Domestic Violence: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s, p.464, Tam Gu Dang Press, 1998, pp25-26.
- [4] U.H.Kim, Domestic Violence Crime: The Theory and Practice, and the Case, p.428, Baek San Press, 2006, pp48-57.
- [5] H.S.Buen, E.Y.Choi, Y.A.Weon, A Study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Domestic Violence, Research Report,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p.27-33.
- [6] H.Y.Kim, Overturning Sexual Violence, p.333, Korea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Press, 2011, pp79-85.
- [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urvey on Sexual Violence in 2013, Research Re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pp.121-131.
- [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urvey on Sexual Harassment in 2018, Research Re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pp.148-155.
- [9]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8 Police Statistical Yearbook, Research Report,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orea, pp.121-120.
- [1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easures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Women, Research Re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pp.78-85.

- [11] H.M.Park, Research on Serial Felony(I): Serial Sex Crimes,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Criminal Justice Policy, Korea, pp.98-111.
- [12] T.M.Kim, "Realities of Sexual Violence and its Countermeasures",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22, No 3, pp.5-44, 2011.
DOI: <https://www.doi.org/G704-000901.2011.22.3.004>
-

배 나 래(Na-Rae Bae)

[중신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07년 9월 ~ 2008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연구교수
- 2008년 8월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문화복지, 문화교육컨텐츠, 문화산업

소 권 섭(Kwon-Seob So)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대학원 병원경영학과(경영학 석사)
- 2011년 2월 : 건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1981년3월 ~ 2011년 3월 : 김안과병원 원무팀장, 원무부장, 행정부장 역임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의료, 병원행정